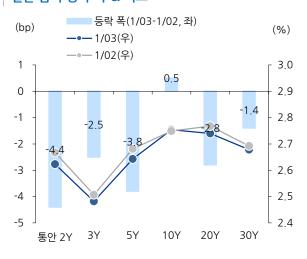
Eugene's FICC Updat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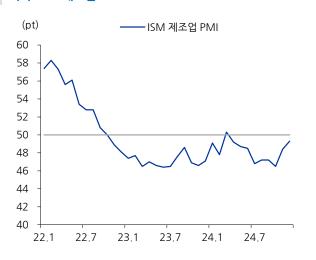


Fixed Income (단위: %,bp, 틱)							
		1/3일	1D	1W	YTD		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482%	-2.5	-16.6	-11.4		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752%	0.5	-15.0	-10.1		
	' 장단기금리차(10년-3년 bp)	27.2	24.2	25.6	25.9		
	3년 국채 선물(KTB)	106.93	4.0	31.0	28.0		
	10년 국채선물(LKTB)	118.00	33.0	96.0	108.0		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280%	3.9	-5.1	4.1		
	미국채 10년물	4.599%	3.8	1.6	1.4		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 bp)	31.9	32.0	25.3	34.6		
	독일국채 10년물	2.424%	4.5	3.1	6.0		
	호주국채 10년물	4.386%	-4.8	0.7	1.8		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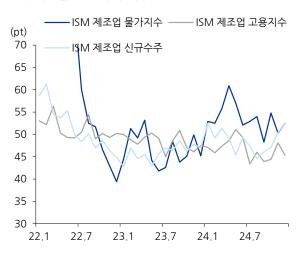
미국 ISM 제조업 PMI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
- 전일 미국채 흐름 연동. 연초 효과도 이어지며 중단기 금리 중심 하락. 3년 금리 장 중 2.5% 하회하자 레벨 부담으로 추가 강세 제한
- 공수처, 대통령 체포 시도했으나 불발. 정치 불안 지속 되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 오후 중 강화. 대신 로컬 기 관 중심 어느정도 방어
- 한은 총재,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전례 없는 불확실성 속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용될 것이 라는 기존 입장 반복

미국 제조업 PMI 하위 지수

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
- ISM 제조업 지수, 전월 예상치 상회. 하위지표 중 물 가지수도 호조를 보였고, 선행지표 격인 신규주문지수 는 2개월째 기준선 상회. 반면 고용지수는 전월비 하락.
- WTI, 5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간 점도 금리 부담으로 작용. 금주부터 사흘간 미국채 입찰도 실시
- 금리선물시장은 연준 1월 금리동결 가능성을 88.8%로 반영 중
- 금일 미국, 중국, 유로존 서비스업 PMI 발표 예정



FX & Commodity (EPI: %, \$)						
		1/3일	1D	1W	YTD	
	원/달러	1,468.40	0.1%	0.8%	-0.3%	
	달러지수	108.94	-0.3%	0.9%	0.4%	
	달러/유로	1,031	0.4%	-1.2%	-0.5%	
환율	위안/달러(역외)	7.36	0.3%	0.8%	0.3%	
	엔/달러	157.35	-0.2%	-0.4%	0.2%	
	달러/파운드	1,243	0.4%	-1.2%	-0.7%	
	헤알/달러	6.18	0.5%	-0.1%	0.0%	
	WTI 근월물(\$)	73.96	1.1%	6.2%	3.1%	
상품	금 현물(\$)	2,638.06	-0,8%	0.9%	0.5%	
	구리 3개월물(\$)	8,876.50	0.8%	-0.8%	1.2%	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+1.80원 상승한 1,468.4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69.70원 마감.
- 간밤 유로화 약세로 달러는 109선을 돌파하면서 달러-원도 개장 직후 1,470원을 넘어섰지만, 당국 및 연금 경계심에 곧바로 낙폭 축소.
- 이후 점심 무렵까지 보합권 내외에서 등락했으나, 오후 들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중지를 발표하면서 상승폭 일부 확대 마감.

원달러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견고했던 미국 경기지표에도 차익 실현 속 반락.
- 12월 ISM 제조업지수는 49.4로 기준선을 하회했지만 시장 예상(48.4)은 상회. 여전히 수요 부진을 겪고 있는 산업도 있었으나 IT 관련 산업의 수요는 나쁘지 않았다 는 응답. 신규주문지수도 전월비 2포인트 넘게 상승.
- 한편 위안화는 당국의 통화 완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달러 당 7.3위안을 넘어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 기록.
- 금주 달러-원 환율은 1,460 ~ 1,480원 범위에서 등락예상. 주중 삼성전자 실적발표, 미국 고용 보고서 등 발표 예정.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는다면미 고용 보고서 이전까지 방향성은 뚜렷하지 않을 전망.